

# 여성 시간제 근로의 현주소

김복순\*

## I. 머리말

정부는 2012년 현재 64.2%(15~64세 기준)인 고용률을 2017년까지 70%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238만 개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고용률 70%를 달성하기 위한 로드맵 중 하나는 질 좋은 시간제 일자리를 육성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정부는 1인 8시간 전일제 외에 2인 5시간 선택제를 2014년부터 공공부문을 시작으로 도입할 계획이라고 발표하였다. 결과적으로 238만 개의 일자리 중 93만 개를 양질의 시간선택제 일자리로 채운다는 것이다.

노동시장에는 ‘시간제 일자리=열악한 일자리’, ‘시간제 일자리=취약계층(여성, 청년, 고령자)의 일자리’라는 인식이 만연하다. 그래서 결국 기존의 시간제 일자리만 확대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적지 않다. 특히 여성근로자라면 한 번쯤은 ‘일 또는 가정’이라는 선택의 기로에 서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정부가 지향하는 ‘질 좋은 시간선택제’가 정착된다면 여성근로자에게 ‘일 또는 가정’이라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일과 가정의 양립’이 보편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지금까지 시간제 일자리가 도대체 어떤 일자리였으며, 근로여건은 어떠한지 현황을 파악하고, 특히 시간제 일자리 10개 중 7개가 여성근로자인 현실에서 여성 시간제 근로자를 중심으로 이를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상대적으로 근로조건이 좋지 않은 여성근로자를 더욱 열악한 노동시장 취약계층으로 내몰지 않도록, 정부가 지향하는 질 좋은 시간선택제 육성을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데 시사하는 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 한국노동연구원 책임연구원(seesaram@kli.re.kr).

## Ⅱ. 지금까지 여성 시간제 일자리는 어떤 일자리인가?

### 1. 최근 고용추세와 여성 고용 현황

2013년 8월까지 취업자 수는 전년동기대비 318천 명 증가하였고 고용률은 59.3%로 전년동기대비 같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정부가 2017년까지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 2013년에 도달해야 하는 고용률 64.6%(15~64세 기준)에는 아직 미흡한 수준이다.

〈표 1〉 최근 고용추세와 고용률 추이

(단위 : 천 명, %, 전년대비, 전년동기대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2.1~8	2013.1~8
전 연령											
취업자		22,856	23,151	23,433	23,577	23,506	23,829	24,244	24,681	24,594	24,912
	(고용증감)	299	295	282	145	-72	323	415	437	441	318
	(남성 고용증가율)	1.0	0.9	1.2	0.7	0.2	1.3	1.7	1.7	1.7	1.1
	(여성 고용증가율)	1.7	1.9	1.2	0.5	-1.0	1.5	1.8	2.0	2.0	1.6
고용률	전체	59.7	59.7	59.8	59.5	58.6	58.7	59.1	59.4	59.3	59.3
	여성	48.4	48.8	48.9	48.7	47.7	47.8	48.1	48.4	48.3	48.5
	20~24세	57.2	53.9	52.5	50.3	48.6	48.8	48.2	48.9	49.1	47.5
	25~29세	63.0	64.3	65.4	66.3	65.6	66.2	67.8	68.0	68.6	67.7
	30~34세	48.6	51.6	52.0	51.7	50.1	52.9	53.2	54.8	53.8	56.6
	35~39세	57.3	58.4	57.4	57.4	54.9	54.3	54.1	54.1	54.2	53.7
	40~44세	64.0	64.3	65.2	64.6	64.0	64.2	64.2	62.9	62.8	62.4
	45~49세	61.6	63.3	64.1	64.7	64.2	64.2	65.6	66.4	66.5	66.2
	50~54세	57.4	57.6	58.4	59.5	59.9	60.2	61.2	61.5	61.4	62.5
	55~59세	48.1	49.1	50.0	51.9	51.0	52.3	53.2	53.9	53.7	54.7
	60~64세	42.9	43.2	43.2	41.9	41.3	40.4	41.3	43.1	42.6	44.5
	65세 이상	22.4	22.6	23.3	22.8	22.1	21.2	21.4	22.6	22.3	22.6
경제활동 참가율	남성	71.6	71.3	71.3	70.9	70.1	70.1	70.5	70.8	70.7	70.5
	여성	74.6	74.1	74.0	73.5	73.1	73.0	73.1	73.3	73.3	73.1
	여성	50.1	50.3	50.2	50.0	49.2	49.4	49.7	49.9	49.9	50.0
15~64세											
취업자 수		21,505	21,716	21,919	22,049	21,960	22,279	22,621	22,897	22,842	23,053
	(고용증감)	191	211	203	130	-89	319	342	276	285	211
고용률	전체	63.7	63.8	63.9	63.8	62.9	63.3	63.9	64.2	64.2	64.2
	여성	52.5	53.1	53.2	53.2	52.2	52.6	53.1	53.5	53.4	53.6
	남성	75.0	74.7	74.6	74.4	73.6	73.9	74.5	74.9	74.9	74.6

주 : 1월부터 8월까지의 평균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2013년 고용실적은 연초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근거로 예상했던 것보다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여러 요인들이 있겠지만 노동공급 측면에서 볼 때, 2013년 고용증가세를 견인하고 있는 것은 여성근로자의 노동시장 진입이 늘고 있다는 것이다. 2013년 8월까지

〈표 2〉 여성 취업자의 특성

(단위 : 천 명, %, 전년대비, 전년동기대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1.1~8	2012.1~8	2013.1~8	
여성 취업자 전체	162	180	119	48	-103	142	177	203	174	198	163	
종사상 지위별	임금근로자	154	182	183	113	87	275	197	191	213	182	195
	상용직	150	178	200	138	97	369	318	246	340	235	268
	임시직	5	35	31	-5	55	-18	-78	16	-99	37	-45
	일용직	-1	-31	-48	-21	-66	-76	-44	-71	-28	-90	-29
	비임금근로자	8	-1	-64	-64	-190	-133	-20	11	-38	16	-32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15	-2	14	-1	-5	-18	2	15	-7	24	9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51	23	-20	-45	-119	-34	-22	-2	-49	8	-13
	무급가족종사자	-58	-23	-57	-18	-66	-81	1	-2	18	-15	-28
연령별	20세 미만	-10	-14	-6	-6	-1	17	7	3	4	2	-8
	20~24세	-67	-120	-69	-54	-38	-5	-5	23	-7	16	2
	25~29세	42	40	37	9	-35	-27	-23	-52	-30	-35	-55
	30~34세	-39	23	-30	-24	-41	52	17	47	11	34	74
	35~39세	24	47	-6	2	-64	-35	-39	-33	-24	-35	-39
	40~44세	-27	-11	6	-11	-1	23	21	-10	29	-16	5
	45~49세	74	74	42	26	-10	-12	12	4	15	7	-7
	50~54세	102	70	75	62	60	62	61	37	64	38	48
	55~59세	22	33	27	41	20	64	69	68	63	75	67
	60~64세	-5	7	9	-5	9	7	26	39	25	37	42
	65세 이상	45	32	35	10	0	-4	30	76	26	75	35
50세 이상 비중	25.6	26.6	27.8	28.7	29.9	30.8	32.1	33.6	31.8	33.4	34.7	
산업별	제조업	-78	-47	-17	-37	-110	76	37	-5	60	-22	-11
	서비스업	260	228	155	112	66	121	150	241	124	254	196
	도소매업	-41	-33	-44	-10	-35	2	-24	33	-40	27	10
	음식숙박업	-2	-5	1	-20	-103	-46	-26	25	-34	17	26
	공공행정 등	26	21	-6	8	109	-21	-21	2	-6	0	16
	교육서비스업	53	83	21	29	42	-24	-70	42	-99	48	-19
	보건 및 사회복지	54	31	40	92	140	149	140	75	157	81	114
	개인서비스업	29	33	55	-14	-56	-7	19	23	6	24	16
	사회서비스업	-	-	-	-	289	99	54	113	56	124	120

주 : 1) 1월부터 8월까지의 평균임.

2) 사회서비스업은 9차 표준산업분류기준에 의거 공공행정 및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84), 교육서비스업(85), 보건업(86), 사회복지서비스업(87), 협회 및 단체(94), 국제 및 외국기관(99)을 의미함.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여성근로자의 경제활동참가율은 50.0%로 전년동기대비 소폭 상승하였다. 여성 근로자의 경제활동참가율은 국제금융위기 이후 상승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아직 국제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까지 회복이 덜 된 상태라 향후 여성근로자의 노동시장 진입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2013년 8월까지 여성취업자는 상용직 주도의 고용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30대 초반, 50세 이상 중고령층에서 고용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구고령화의 영향으로 여성취업자중 50세 이상 중고령층이 차지하는 비중이 34.7%로 나타나 전년동기대비 1.3%포인트나 증가하였으며 앞으로도 이들 중고령층의 노동시장 진입은 활발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최근 여성 고용증가세가 몇몇 산업, 특히 내수를 기반으로 하는 도소매업·음식숙박업과 장기적인 증가추세를 이어온 사회서비스업에 편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더불어 여성취업자 10명 중 5명은 저숙련 직종에 종사하고 있으며, 특히 50세 이상 중고령층 10명 중 약 7명은 저숙련 직종에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sup>1)</sup>

최근 여성 고용증가세는 중고령층과 도소매업 및 보건, 사회복지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저숙련 직종에 집중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여성 일자리의 인식’, ‘여성인력의 활용’ 측면에서 재고의 여지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고용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는 여성근로자는 과연 어떤 형태로 노동시장에 머물고 있는가? 이를 확인하기 위해 「경제활동인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3월)」를 통해 여성근로자의 고용형태별 분포를 파악하도록 하겠다.

2013년 3월 현재 여성근로자는 7,618천 명으로 전체 임금근로자의 42.9%를 차지하고 있다. 이 중 비정규직은 3,084천 명(40.5%)로 전년동월대비 35천 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비정규직의 감소는 한시적 근로의 감소와 시간제 근로자의 고용증가폭 둔화에 기인하고 있다. 그러나 여성임금근로자 중 시간제 근로자는 16.9%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1) 본고에서의 저숙련 직종은 통계청 9차 표준직업분류에 의거 서비스, 판매 종사자, 단순노무종사자를 의미한다.

〈표 3〉 여성근로자의 고용형태별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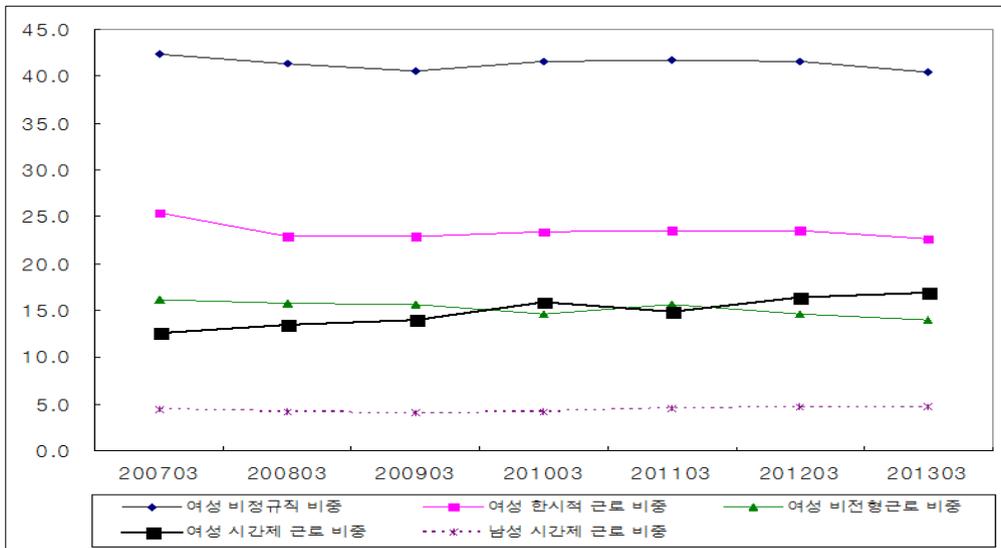
(단위: 천 명, %)

		2007. 3	2008. 3	2009. 3	2010. 3	2011. 3	2012. 3	2013. 3
임금근로자		6,625	6,756	6,768	7,075	7,240	7,499	7,618
정규직		3,820	3,962	4,020	4,132	4,218	4,379	4,534
비정규직		2,805	2,794	2,748	2,943	3,021	3,119	3,084
(비중)		42.3	41.4	40.6	41.6	41.7	41.6	40.5
비정규 고용 형태	한시적근로	25.4	22.8	22.8	23.4	23.5	23.5	22.6
	기간제근로	17.4	15.0	17.5	17.4	17.3	17.7	17.4
	계약반복갱신	3.3	1.3	0.3	1.9	2.7	2.4	1.7
	계속근무기대	4.7	6.5	5.0	4.1	3.5	3.5	3.6
	비전형근로	16.1	15.7	15.6	14.6	15.6	14.7	14.0
	파견근로	1.4	1.2	1.1	1.5	1.6	1.4	1.5
	용역근로	3.5	3.6	3.8	3.3	3.8	4.0	4.0
	특수고용	6.3	5.9	6.3	5.7	5.5	5.2	4.8
	재택근로	2.1	1.6	0.9	0.8	1.0	0.9	0.8
	일일단기근로	4.9	4.7	4.4	4.0	4.3	3.9	3.4
	시간제근로	12.5	13.5	13.9	15.9	14.9	16.4	16.9
	(남성 시간제)	4.4	4.2	4.0	4.2	4.6	4.7	4.7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3월)』 원자료.

〈그림 1〉 여성근로자의 고용형태별 비중 추이

(단위: %)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3월)』 원자료.

## 2. 여성 시간제 일자리의 특성

현 정부가 2017년까지 고용률 70%를 달성하기 위한 일자리 창출 전략 중 하나가 바로 질 좋은 시간제 일자리 육성이다. 2013년 3월 현재 임금근로자 중 시간제 근로자는 1,757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56천 명 증가하여 2012년 170천 명 증가한 것과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전체 임금근로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9.9%로 전년동월대비 0.1%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시간제 근로자의 73.1%가 여성근로자일 정도로 늘어난 시간제 근로자의 대부분은 여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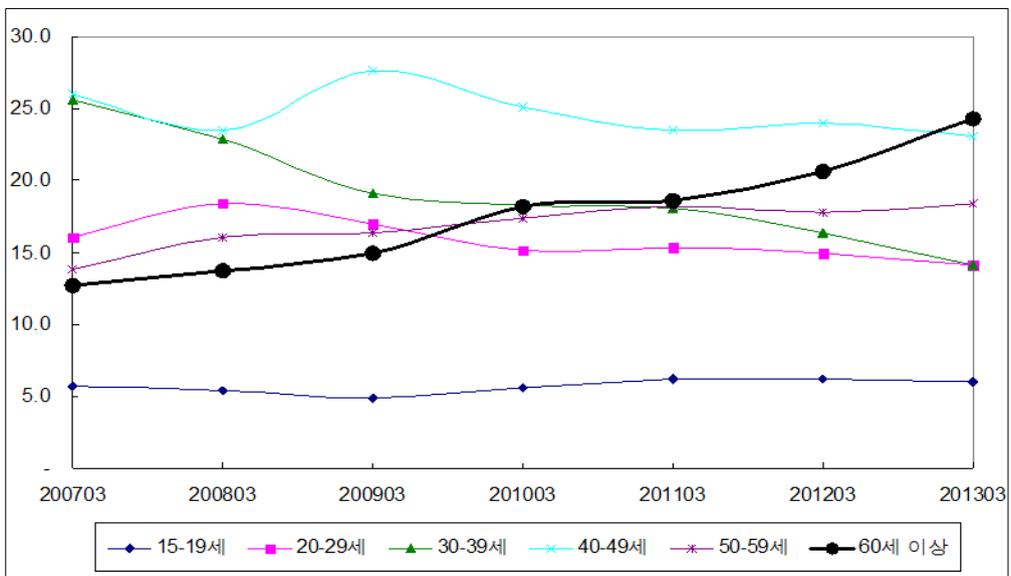
여성 시간제 근로자의 연령별 분포를 보면 50세 이상 중고령층이 차지하는 비중이 42.7%로 나타났으며 특히 60세 이상 연령층에서의 증가가 확인한 것을 [그림 2]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50세 이상 중고령층의 시간제 근로자로의 유입은 인구고령화와 맞물려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앞에서 최근 여성 고용증가세에도 불구하고 여성근로자가 특정 몇몇 업종, 저숙련 직종에 집중되어 있음을 지적하였다. 여성 시간제 근로자 또한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사회서비스업과 서비스직, 단순노무직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성 시간제 근로자 중 ‘육아 및 가사’, ‘본인이 원해서’라는 이유로 36시간 미만 일하는 근로자는 31.0%(398천 명)로 전년동월대비 0.3%포인트 증가하였다. 그리고 36

[그림 2] 여성 시간제 근로자의 연령별 비중 추이

(단위 :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3월)」 원자료.

시간 미만 시간 근로자 1,213천 명 중 82.7%가 이 시간제 일자리에 계속 그대로 일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 대부분이 노동시장 취약계층인 50세 이상 중고령층으로 시간제 일자리에 대한 만족도보다는 그나마 일을 할 수 있다는 현실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표 4〉 여성 시간제 근로자의 특성

(단위: 천 명, %)

	고용증감						비중							
	2008.3	2009.3	2010.3	2011.3	2012.3	2013.3	2007.3	2008.3	2009.3	2010.3	2011.3	2012.3	2013.3	
시간제 전체	69	16	208	7	170	56	7.8	8.1	8.2	9.2	9.0	9.8	9.9	
여성 시간제	78	33	184	-50	154	54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연령별	20세 미만	1	-2	17	3	9	1	5.7	5.4	4.9	5.6	6.2	6.2	6.0
	20대	34	-8	11	-6	19	-2	16.0	18.4	16.9	15.2	15.3	15.0	14.2
	30대	-5	-28	27	-12	7	-20	25.7	22.9	19.1	18.4	18.1	16.4	14.1
	40대	-3	48	22	-30	42	1	26.0	23.5	27.7	25.2	23.5	24.0	23.1
	50대	31	8	42	-0	23	17	13.8	16.1	16.4	17.4	18.2	17.8	18.4
	60세 이상	19	16	65	-5	54	57	12.7	13.7	14.9	18.2	18.6	20.7	24.3
산업별	제조업	2	-25	-2	-1	-11	6	11.2	10.5	7.4	6.0	6.2	4.5	4.7
	서비스업	73	66	181	-39	166	47	84.4	85.2	89.2	90.7	91.2	93.3	93.0
	도소매업	15	3	21	-5	22	-7	17.9	17.9	17.7	16.6	16.9	16.6	15.4
	음식숙박업	24	7	16	-26	33	20	17.3	18.4	18.5	17.0	15.3	16.0	17.0
	공공행정 등	-3	26	27	-22	27	17	6.1	5.2	7.7	8.9	7.3	8.5	9.5
	교육서비스업	-2	13	32	-20	25	-9	18.1	16.4	17.2	17.2	16.2	16.2	14.8
직종별	보건 및 사회복지	17	28	46	31	16	11	2.8	4.5	7.3	10.2	13.6	13.2	13.4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11	1	30	-4	50	-22	18.6	18.2	17.7	17.5	17.9	19.8	17.2
	사무직	-5	5	7	6	11	14	9.7	8.3	8.5	7.8	8.7	8.5	9.2
	서비스직	27	37	17	-12	36	19	17.5	19.0	22.2	20.1	19.9	20.3	21.0
	판매직	22	-2	45	-19	15	2	13.3	14.6	13.9	15.6	14.6	14.0	13.5
단순노무직	18	3	89	-20	47	32	36.9	35.7	34.7	37.0	36.8	36.0	37.0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3월)』 원자료.

〈표 5〉 여성 시간제 근로자 중 36시간 미만 근로자의 특성

(단위: 천 명, %)

		고용						비중						
		2008. 3	2009. 3	2010. 3	2011. 3	2012. 3	2013. 3	2007. 3	2008. 3	2009. 3	2010. 3	2011. 3	2012. 3	2013. 3
36시간 미만 근로자		775	855	1,079	1,043	1,164	1,213	91.2	85.2	90.8	95.8	96.9	94.5	94.4
평소 36시간 미만 이유	육아	39	41	44	47	38	58	4.9	4.3	4.3	3.9	4.4	3.1	4.5
	가사	87	90	129	98	112	125	9.7	9.6	9.6	11.5	9.1	9.1	9.8
	본인이 원해서	119	149	164	184	194	215	14.1	13.1	15.8	14.6	17.1	15.8	16.7
	평소 일거리가 없어서	121	183	175	145	141	122	17.4	13.3	19.4	15.6	13.5	11.5	9.5
추가 취업 및 전직 희망	현재보다 시간을 늘리고 싶다	167	268	129	98	88	76	15.3	18.4	28.4	11.5	9.1	7.2	5.9
	현재보다 다른 일도 하고 싶다	49	71	28	39	31	30	4.2	5.4	7.5	2.5	3.6	2.5	2.3
	더 많이 일할 수 있는 일로 바꾸고 싶다	93	108	54	46	39	45	7.0	10.2	11.5	4.8	4.2	3.2	3.5
	계속 그대로 일하고 싶다	466	409	868	859	1,005	1,063	64.6	51.2	43.4	77.0	79.8	81.7	82.7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3월)」 원자료.

### Ⅲ. 여성 시간제 일자리의 근로조건은 어떠한가?

노동시장에서 일자리에 대한 선택의 여지가 없어서인지, 아니면 육아나 가사 등의 이유로 근로자 스스로 선택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2013년 여성근로자의 16.9%에 해당하는 1,285천 명이 시간제 근로형태로 그들의 노동력을 제공하고 있다. 더군다나 정부는 ‘시간선택제’라는 이름으로 임금이나 승진 등 근로여건이 동등한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육성을 일자리 창출 전략으로 삼고 있어 향후 시간제 일자리는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현재 시간제 일자리의 근로조건은 어느 정도 수준인가? 2013년 3월 현재 여성 정규직근로자의 임금수준은 남성 정규직 임금근로자의 62.9%, 여성 비정규직의 임금수준은 전체 정규직 근로자 대비 55.7%로 임금격차가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지만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시간제 근로자의 임금수준은 정규직 근로자의 54.6%로 임금격차가 좁혀졌지만, 도소매·음식숙박업에 종사하는 여성 시간제 근로자의 임금수준은 전체 정규직 근로자의 40.8%로 2012년 3월 45.1%보다 더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시간당 임금수준(정규직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수준=100)

(단위 : %)

	비정규직 전체	여성				여성 정규직
		비정규직	50세 이상 중고령층	도소매· 음식숙박업	보건업· 사회복지업	
2007. 3	73.2	62.6	44.6	51.5	77.5	61.6
2008. 3	67.3	59.6	45.9	47.5	68.2	60.3
2009. 3	63.9	56.8	42.4	44.8	63.7	60.2
2010. 3	62.3	55.4	43.9	43.9	57.5	60.5
2011. 3	65.2	56.5	43.5	46.5	56.8	61.2
2012. 3	66.5	56.2	44.8	47.2	55.0	61.4
2013. 3	63.5	55.7	45.9	43.0	58.2	62.9
시간제 근로						
2007. 3	72.9	67.7	47.8	55.2	94.7	81.0
2008. 3	63.1	62.7	51.3	47.7	71.3	98.0
2009. 3	59.5	58.0	44.5	44.3	59.9	91.9
2010. 3	55.4	53.8	44.7	41.7	52.4	89.4
2011. 3	57.6	55.7	44.0	44.8	52.3	89.7
2012. 3	56.8	53.5	43.5	45.1	47.9	81.6
2013. 3	54.6	53.3	45.3	40.8	50.8	92.1

주 : 여성 정규직 임금수준은 남성 정규직 시간당 임금(100)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시간제근로에서는 남성 시간제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을 기준으로 여성 시간제 근로자의 임금수준을 나타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3월)』 원자료.

또한 2013년 3월 현재 전체 임금근로자 중 저임금근로자는 25.1%였으며, 여성의 저임금근로자 비중은 38.3%로 남성에 비해 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시간제 근로자의 저임금근로자 비중은 60.8%였으며, 여성 시간제 근로자의 저임금 비중은 61.9%로 나타났다. 여성 시간제 근로자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는 50세 이상 중고령층에서 저임금 근로자 비중은 69.1%로 전년동월대비 소폭 줄어들긴 했지만 50세 이상 여성 시간제 근로자 10명 중 7명 정도가 저임금근로자로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sup>2)</sup>

전체 여성근로자의 17.4%가 법정 최저임금(시간당 임금 기준) 이하를 수령하고 있으며, 전년동월에 비해 그 비중이 증가했다는 점은 눈여겨 봐야 할 것이다. 특히 여성 시간제 근로자 중 최저임금 이하를 받고 일을 하는 비중이 36.5%로 나타났으며, 전년동월대비

2) 저임금근로자는 임금근로자 중 임금수준이 시간당임금 중위값(median)의 2/3 미만인 근로자를 의미한다.

9.1%포인트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제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의 수치에 육박한 수준이다.

〈표 7〉 저임금근로자 비중

(단위 : %)

	임금근로자			정규직			비정규직			시간제 근로			시간제 50세 이상 중고령층		
	소계	남성	여성	소계	남성	여성	소계	남성	여성	소계	남성	여성	소계	남성	여성
2007. 3	23.3	14.0	36.0	17.1	8.6	30.9	33.9	25.4	42.8	42.1	36.4	44.8	49.8	43.7	53.8
2008. 3	27.1	17.0	41.0	19.1	9.5	34.5	41.9	33.8	50.2	53.2	50.4	54.4	60.7	55.1	63.3
2009. 3	25.6	15.7	39.2	17.8	8.7	32.8	41.1	33.4	48.5	53.2	48.4	55.1	61.1	52.4	65.5
2010. 3	26.5	16.4	40.2	18.7	9.9	33.7	42.4	34.4	49.3	57.2	56.6	57.4	67.0	63.0	68.7
2011. 3	24.0	15.0	36.3	16.6	9.0	29.3	38.7	30.6	46.0	53.4	52.0	53.9	57.1	50.8	60.2
2012. 3	26.2	15.8	39.9	17.9	9.4	32.0	42.8	33.2	51.1	60.3	54.8	62.5	66.6	56.3	71.0
2013. 3	25.1	15.2	38.3	16.3	8.4	29.4	43.6	34.5	51.3	60.8	58.0	61.9	66.4	59.3	69.1

주 : 저임금 근로자는 시간당 임금을 기준으로 중위임금의 2/3 미만인 자로 정의함.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3월)」 원자료.

〈표 8〉 최저임금 미만 비중

(단위 : %)

	임금근로자			정규직			비정규직			시간제 근로			시간제 50세 이상 중고령층		
	소계	남성	여성	소계	남성	여성	소계	남성	여성	소계	남성	여성	소계	남성	여성
2007. 3	12.2	7.6	18.4	7.7	4.1	13.6	19.9	15.0	25.0	29.2	24.0	31.7	35.8	30.7	39.1
2008. 3	12.1	7.6	18.2	7.3	3.5	13.6	20.7	16.8	24.7	27.0	26.0	27.5	32.9	30.0	34.2
2009. 3	13.8	8.6	21.0	8.5	4.3	15.6	24.4	19.6	28.9	36.9	35.6	37.3	48.5	43.4	51.1
2010. 3	12.8	8.2	19.1	7.9	4.0	14.5	22.8	19.5	25.6	35.8	36.4	35.6	46.1	47.6	45.5
2011. 3	12.0	8.1	17.2	7.1	4.1	12.1	21.4	18.4	24.2	32.0	35.0	30.7	38.4	40.9	37.1
2012. 3	9.9	6.4	14.6	5.9	3.1	10.7	17.9	15.5	20.0	27.9	29.1	27.5	36.1	36.7	35.9
2013. 3	11.8	7.5	17.4	6.3	3.3	11.1	23.3	19.5	26.6	36.8	37.5	36.5	40.1	38.8	40.6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3월)」 원자료.

한편 여성 시간제 근로자의 국민연금가입률과 건강보험가입률은 2013년 3월 현재 각각 15.5%, 18.7%로 증가추세이지만 전체 정규직 근로자의 81.3%, 83.2%, 여성 비정규직 근로자의 39.1%, 43.0%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더군다나 여성 시간제 근로자의

고용보험가입률은 17.9%로 전년동월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퇴직금 가능여부나 유급휴가 가능여부 등 여러 지표들을 볼 때 여성 시간제 근로자들에 대한 복지수준이 상당히 낮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9〉 사회보험가입률 추이

(단위 : %)

		2007. 3	2008. 3	2009. 3	2010. 3	2011. 3	2012. 3	2013. 3
국민연금 가입률	정규직	76.0	77.6	78.7	78.6	79.1	79.6	81.3
	비정규직	39.3	37.4	37.6	39.3	39.5	40.5	40.0
	여성 비정규직	34.2	34.2	34.6	36.9	38.5	39.8	39.1
	여성 시간제	2.8	8.6	8.5	9.3	12.5	15.5	15.5
건강보험 가입률	정규직	76.6	78.2	79.5	79.6	80.6	81.3	83.2
	비정규직	41.8	40.2	40.9	43.3	45.1	46.5	46.8
	여성 비정규직	35.5	35.2	36.0	38.9	41.3	43.0	43.0
	여성 시간제	3.7	9.6	8.5	10.3	13.3	17.6	18.7
고용보험 가입률	정규직	65.4	65.6	67.3	67.2	68.9	69.9	72.1
	비정규직	38.8	37.1	39.1	42.1	43.4	44.4	43.4
	여성 비정규직	33.4	33.2	35	38.5	40.2	41.6	40.9
	여성 시간제	2.9	8.0	9.2	10.6	14.6	18.2	17.9
퇴직금 가능여부	정규직	68.9	74.3	76.3	76.6	77.9	79.4	81.6
	비정규직	33.7	33.7	34.1	36.8	40.2	40.6	40.7
	여성 비정규직	27.7	28.8	29.3	32.4	36.1	37.6	37.7
	여성 시간제	1.6	6.5	5.5	7.0	10.4	13.5	14.0
유급휴가가능여부	정규직	59.9	64.6	67.4	70.9	69.6	69.0	71.5
	비정규직	27.3	25.8	27.6	34.0	33.0	32.3	34.0
	여성 비정규직	23.0	21.6	23.5	30.4	29.2	29.6	30.6
	여성 시간제	2.5	3.3	3.5	5.9	6.1	7.2	9.4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3월)」 원자료.

#### IV. 여성 시간제 일자리의 질은 어떠한가?

여성 근로자 중 시간제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늘고 있는 현실에서, 더 나아가 앞으로 질 좋은 시간제 일자리를 확대하겠다는 정책 의지를 볼 때 지금의 시간제 일자리 질은

어떠한지 궁금하다. 본고에서는 ‘일자리의 질(Job Quality)’ 개념을 도입하여 중간일자리의 변화 특히 여성 시간제 근로자의 중간일자리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분석을 위해 산업중분류·직종중분류별 근로자수를 일자리로 보고, 각 셀마다 시간당 임금의 중위값을 일자리의 질로 판단하고 있다. 여기에서 중간일자리란 각 셀의 시간당 임금의 중위값을 서열화한 후, 각 셀별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25~75%에 해당하는 일자리를 의미한다. 중간일자리의 비중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3월)』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2013년 3월 현재 전체 임금근로자의 중간일자리란 52.4%로 2008년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여성 시간제 근로자의 중간일자리란 23.2%로 전년동월대비 감소한 반면, 하위일자리란 61.3%로 전년동월대비 2.3%포인트 증가하였으며, 이는 국제금융위기였던 2009년에 비해 높은 것이다. 여성 비정규직의 고용형태별로 비교해보아도 시간제 일자리의 하위일자리 비중은 상당히 높다.

〈표 10〉 여성 임금근로자의 중간일자리 변화

(단위 : %)

		2008. 3	2009. 3	2010. 3	2011. 3	2012. 3	2013. 3
임금근로자	하위일자리	25.0	25.1	25.6	24.7	24.2	24.3
	중간일자리	49.9	49.9	49.4	51.2	51.7	52.4
	상위일자리	25.1	24.9	25.0	24.1	24.1	23.4
여성	하위일자리	38.2	38.5	39.1	37.2	36.9	36.7
	중간일자리	43.0	42.3	41.5	44.9	45.0	46.1
	상위일자리	18.8	19.2	19.5	18.0	18.2	17.2
여성 시간제	하위일자리	58.6	59.8	62.2	60.1	59.0	61.3
	중간일자리	23.0	21.9	19.9	24.3	24.0	23.2
	상위일자리	18.4	18.2	17.9	15.7	17.1	15.5
여성 한시근로	하위일자리	45.7	45.3	44.7	40.8	40.8	43.5
	중간일자리	36.7	36.4	35.3	40.6	41.6	39.9
	상위일자리	17.6	18.4	20.0	18.6	17.6	16.6
여성 비전형근로	하위일자리	46.9	47.4	44.3	45.3	46.1	47.3
	중간일자리	47.0	45.6	48.2	47.5	46.2	46.1
	상위일자리	6.1	7.0	7.5	7.2	7.7	6.6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3월)』 원자료.

여성 시간제 근로자의 산업별 중간일자리 변화를 보면, 시간제 근로자의 비중이 큰 도 소매업과 음식숙박업의 경우 중간일자리가 차지하는 비중이 감소한 반면, 하위일자리의 비중은 85.2%로 상당히 높고, 이는 국제금융위기였던 2009년 3월보다 3.1%포인트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더불어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에서의 하위일자리 비중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시간제 일자리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50세 이상 중고령층의 중간일자리 비중 또한 16.7%로 2008년에 비해 2.6%포인트 줄어든 반면, 하위일자리 비중은 3.7%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여성 시간제 일자리의 증가세를 주도해 왔던 중고령층의 하위일자리 비중이 국제금융위기에 비해 높다는 점에 주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표 11〉 여성 시간제 근로자의 중간일자리 변화

(단위 : %)

		2008. 3	2009. 3	2010. 3	2011. 3	2012. 3	2013. 3
도소매업 및 음식숙박업	하위일자리	82.3	82.1	87.0	81.1	82.8	85.2
	중간일자리	17.7	17.9	13.0	18.9	16.7	14.8
	상위일자리	0.0	0.0	0.0	0.0	0.4	0.0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하위일자리	35.4	53.7	66.1	62.3	53.9	57.3
	중간일자리	61.8	44.1	33.3	36.0	45.2	41.7
	상위일자리	2.8	2.2	0.6	1.7	0.9	1.0
여성 시간제 50세 이상 중고령층	하위일자리	72.5	75.3	77.6	77.2	75.8	76.2
	중간일자리	19.3	16.1	16.2	17.4	17.6	16.7
	상위일자리	8.2	8.5	6.2	5.4	6.6	7.1
여성 시간제 60세 이상 고령층	하위일자리	78.2	77.5	81.9	83.5	79.7	81.4
	중간일자리	17.4	17.4	13.7	14.5	18.5	15.5
	상위일자리	4.5	5.1	4.4	2.0	1.8	3.2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3월)』 원자료.

## V. 맺음말

정부는 2017년까지 15~64세 기준 고용률을 7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정책의지와 함께 ‘질 좋은 시간선택제’라는 정책수단을 활용하여 반듯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한다. ‘질 좋은 시간선택제’라는 멋진 그림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지금 노동시장에서의 시간제 근로자의 현실을 정확히 인식해야 할 것이다.

시간제 근로자는 대부분 노동시장 취약계층인 여성근로자이며, 이들은 또한 특정 산업, 저숙련 직종에 집중되어 있다. 그리고 저임금을 받거나, 법정 최저임금 이하를 받고 있는 여성 시간제 근로자의 비중이 상당히 높다. 특히 여성 시간제 근로자의 높은 비중을 차지

하고 있는 50세 이상 중고령층의 10명 중 4명이 최저임금 이하 수준을 받으면서 그들의 노동력을 제공하고 있다. 더불어 여성 시간제 근로자들의 4대보험 가입률이나 퇴직금, 유급휴가 등 복지수준은 나아지고는 있지만 상당히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또한 임금근로자, 여성근로자의 중간일자리 비중은 증가하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여성 시간제 근로자의 중간일자리는 오히려 감소하면서 하위일자리 비중이 늘고 있다. 더군다나 여성 시간제 근로자가 많이 분포되어 있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50세 이상 중고령층에서 하위일자리 비중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시간제 일자리에 대한 특성을 정확히 파악하고, 임금이나 각종 처우에 있어서 동등한 ‘질 좋은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공급한다면 지금의 시간제 일자리와는 차별화된 일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KLI**